

현대러어에서 2인칭대명사의 인물지시에 대한 어용적의미분석

장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뜻이 깊은 말이라고 해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 우습게 들리거나 싱거운 소리로 되고 만다. 인물이 처하여있는 정황에 따라서 같은 사상감정을 나타내면서도 말은 달라질수 있고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20페이지)

외국어학습에서는 외국어단어나 표현이 문맥을 통하여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언어정황에 맞게 옹계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신다.

인물지시란 한마디로 말하여 언어행위에 참가한 인물에 대한 가리킴으로서 그 인물이 현재 어떠한 언어정황에 있는가 하는것을 확정하는것이다.

로어에는 대화에 참가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대한 인물지시 그리고 화제에 오른 대상에 대한 인물지시가 있다. 여기서는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인물지시 즉 2인칭대명사가 나타내는 인물지시의 어용적의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인물지시란 대화상대방을 찾거나 부르는것 혹은 가리키는 단어를 말하며 여기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지시어는 2인칭대명사이다.

무엇보다먼저 로어대명사의 단수2인칭형태의 어용적의미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로어의 단수2인칭에서는 대명사 《ты》뿐아니라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вы》도 쓰인다.

우선 현대러어에서 대화상대방을 지시하는 《ты》와 《вы》가 나타내는 의미적색채는 서로 다르다.

《ты》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동등하다는것과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의미한다. 《вы》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례의관계를 나타내거나 그와의 일정한 관계 유지 그리고 사회적직급을 의미할 때 쓰인다.

그러나 《ты》는 일정한 언어정황속에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점잖지 못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쉽게 이전되며 반대로 례의를 나타내는 《вы》는 격식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례: — Что ты наконец прицепилась ко мне со своим Толстым?

— Я к тебе прицепилась с Толстым? Я? Я к вам прицепилась с Толстым? Коля тоже перешел на «вы».

(《왜 또 당신은 자기 똥쓰또이와 함께 나한테 달라붙소?》 《내가 당신한테 똥쓰또이와 함께 달라붙는다구요? 내가? 내가 동무한테 달라붙는단 말이지?》 꼴랴도 역시 《동무》라는 말로 넘어갔다.)

우의 실례에서는 젊은 부부간의 언쟁이 자연스러운 《ты》로부터 공식적인 《вы》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치렬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вы》로 부르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련의 사랑감과 친절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이 《ты》로 이전되면서 더욱더 치밀한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레: — Слушай, Нина, ты не больна? У тебя вид ну никакой...

Прежде они были на «ты», но теперь Нина старалась при разговоре строить фразу грамматически неопределенно, чтобы никак не обозначать их новые служеб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ишком давно они были знакомы, чтобы переходить обратно на «вы».

— Всё ничего. Бессонница у меня.

(《니나, 너 아프지 않니? 상태를 보아선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들은 이전에 《너》로 대상하였지만 지금은 니나가 대화를 나눌 때에 자기들의 새로운 사업상관계를 전혀 의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법적으로 애매하게 문구를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서로 《동무》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오래동안 서로 잘 알고있었다. 《괜찮아. 그저 잠을 좀 설쳤을뿐이야.》)

또한 《ты》와 《вы》의 사용한계점이 대단히 미묘하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이 미묘한 한계점을 고려함이 없이 주어진 언어환경에서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지시하면 때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잡지에 실린 지적소유권에 관한 기사를 실례로 들어보자.

레: И долго буду тем любезен я народу, – писал А. Пушкин.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ринадлежит всем нам. А вы, Э. Успенский, народу не любезны, потому что думаешь только о своих доходах, гад! (《나는 오랫동안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것이다.》하고 뿌슈킨은 썼다. 《지적소유권은 우리모두에게도 속해있다. 그러나 예. 우쓰펜스끼, 당신은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네가 자기의 수입만 생각하기때문이란 말이야.》)

우의 실례에서 저자는 작가 에두아르트 우쓰펜스끼의 립장에 아주 놀라서 《вы》로부터 모욕적인 의미를 가지는 《ты》로 갑자기 바꾸었다.

또한 최근시기 로어에서 《ты》와 《вы》를 사용하는 환경이 자주 바뀌고있다.

로씨야에서 사회적관계를 맺고있는 사회성원들의 호상관계들이 변하면서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으며 게다가 단수형태인 《ты》로 사용하는데로 유리하게 변화되었다.

인터넷교제에서 《ты》는 서로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적인 지시형태이다. 만일 그 누구인가가 여기에서 《вы》로 지시를 표시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 즉 우연분자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로어에서는 동사형태와 인칭대명사가 함께 쓰이어 말하는 사람과 대화상대방의 인칭의 의미가 반복된다.

로어에는 문체론적규범의 요구로부터 인칭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함께 쓰인다. 《я думаю, ты знаешь》와 같은 실례는 문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이한 정황과 문체의 요구에 따라 쓰일수 있다.

로어에서 하나의 본문 지어는 같은 문장에서 한 대상을 나타내는 문법적의미가 몇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게 된다. 실례로 《Ученик Коля Иванов забыл принести задание?》(콜라 이와노브학생은 과제장을 가져오는것을 잊었습니까?)라는 진술에서 남성의 의미가 4번씩이나 반복됨으로써 정보를 보다 더 확고하게 전달해준다. 이와 반대로 러어의 명령법에서는 인칭동사형태가 쓰이는 경우 대명사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

레: Смотри! (보라!)

Подожди! (기다리라!)

Не забывай! (잊지 말게!)

우의 실례에서 《Ты подожди!》, 《Ты не забудь!》, 《Ты только не отвлекайся!》 등과 같이 인칭대명사가 쓰이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명령이나 부탁에 더해주는 보충적인 색채 즉 대화의 친근성과 다른 주제로 이행하는 의미적색채를 가지게 된다.

레: — Сядь, Ира. Надо поговорить. (이라, 앉아. 말 좀 해야겠어.)

— Что-нибудь случилось? — переполошилась Ирочка.

(《무슨 일이 생겼니?》하고 이로츠키가 몹시 걱정하였다.)

— Да. Да не бледней ты, не смертельно. Просто немного неожиданно. (그래, 걱정말아. 그리 급한것은 아니야. 그저 좀 예상밖의 일이 생겨서 그래.)

또한 대명사 《ты》는 문맥적으로 명사나 혹은 《он, она》라는 대명사로 바꾸어쓰기도 한다.

3자를 통하여 대화상대방을 가리키는것은 언어행위의 참가자구성에서 요소적으로 볼 때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지언어행위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첫째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언어행위가 마치도 대화상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그 어떤 3자에 대하여 진행되는것처럼 보인다.

레: Уважаемый Леон! Мы знакомы, наверное, лет пятнадцать. С тех времен, когда в Россию из-за океана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умные, милые люди. Советовали. Сопереживали. Сочувствовали. Один, помню, даже отчаялся. Зря, говорит, старайтесь.(존경하는 레온! 우리가 안지 아마 15년이 잘될거요. 친근한 자네들이 대양을 건너 로씨야로 왔던 그때로부터 말이요. 충고를 해주고 난관도 겪고 동정도 해왔지. 내 생각에는 한사람만이 절망에 빠졌댔지. 말하자면 괜한것이지. 노력하게.)

우의 실례에서 명사 люди와 대명사 один과 일치하는 동사 3인칭형태는 언제나 대화상대방을 넘두에 두게 된다. 즉 이것은 《ты, среди прочих, приезжал》, 《ты советовал》, 《ты отчаялся》를 의미한다.

둘째로, 대명사 《ты》를 명백한 평가적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명사로 바꾸어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명사는 대화상대방을 넘두에 두게 되며 인칭대명사를 흡수해버린다.

레: Ты один не умывался. И грязнулю остался, и сбежали от грязнули и чулки, и башмаки.(너 혼자 세면을 하지 않아 더러워졌어. 그러니 긴양말도 장화도 너한테는 맞지 않아.)

우의 실례에서 《от тебя》(너로부터)에 의하여 《сбежали от грязнули》는 《루추한 사람》이라는 평가적색채를 가진 경우를 넘두에 둔다.

셋째로, 말하는 사람이 언어행위과정에 일시적으로 2인칭을 3인칭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교제규범을 어긴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언어유희의 뒤에 숨겨진 어용적측면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례: А как он думает? [...] Он не может простить своей жене, что у нее ребенок не от него, а от первого мужа.(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자기의 안해를 용서할수 없어. 그것은 안해가 그가 아니라 자기의 첫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있기때문이야.)

우의 실례문장에서는 3인칭으로 쓰인 대상에 대하여 의미적으로 《А как ты думаешь?》(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Ты не можешь простить, что ребенок не от тебя.》(자네는 자기의 안해를 용서할수 없어.)로 된다.

이외에도 대화상대방을 《ваша милость》, 《ваш брат》라는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По вине вашей милости мы опоздали на поезд.》(당신때문에 우리가 열차에 늦게 도착하였소.)라고 말한다면 말을 듣는 대화상대방이 지적수준이 높고 일정하게 나이가 있다는것을 시사하게 된다. 역시 같은 표현인 《ваш брат》(《너파위》의 의미)는 어용적색채인 불신임, 멸시, 불만족 등을 나타내고있다.

다음으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2인칭대명사 《вы》의 어용적의미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복수2인칭대명사 《вы》는 의미론적으로 볼 때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대화상대자들(《ты + ты + ты...》)을 의미할수도 있고 그 어떤 3자가 속해있는 대화상대자(《ты + он 혹은 она》)를 의미할수도 있다. 이러한 대명사의 지시대상의 호상관계는 언어정황에 따라 변화된다.

례: ① Здесь эмигрантская критика злобно визжит, говоря о вас, работающих в России... Говоря «вы», я, разумеется, исключаю ряд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ишут не то, что могли бы, а лишь о том, что им приказано.(이곳 망명객들속에서는 로씨야에서 일하는 당신들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난하고 있소... 내가 말하는 《당신들》이란 쓸수 있는것은 쓰지 않고 쓰라고 하는것만 쓰는 사람들을 념두에 두지 않소.)

② - Кому это - вам?

- Людям.

- А вы что, не человек? - язвит Екатерина Андреевна(А. Битов. Заповедник).

(《당신들이란 누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지.》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하고 예까제리나 안드레예브나가 쏘아물었다.)

이처럼 로어2인칭대명사는 본문을 꾸미고 언어행위의 공간을 조성하는데만 필요되는 단어들이 아니다. 인칭대명사는 《말하는 사람》--《대화상대자》--《언어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3자》로 되는 대화상대자들사이의 관계들을 조절하는 어용적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로어대명사들이 언어교제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역할을 잘 알고 언어실천 활동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할것이다.